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미쓰 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감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행복한 교실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TV 특강(재)	11	00 방방곡곡 해피트레인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수목 드라마 〈로맨스 타운〉(재)	12	00 MBC 뉴스 25 MBC창사50주년 나눔 〈다문화 꾸러기들의 꿈을 그리는 여행〉	00 SBS 12뉴스 30 건강 클리닉
00 KBS 걸작선 〈제빵왕 김탁구〉(재)		1	05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재)	30 한국의 숲
00 KBS 뉴스 10 TV 미술관(재)	10 호루라기(재)	2	10 스포츠 특선(재) 55 키즈 어드벤처	00 SBS 뉴스 10 드라마스페셜 〈무당2〉
00 아름다운 사람들(재) 10 현장르포 동행(재) 55 TV동화 행복한 세상(재)	00 KBS 뉴스타임 05 다오배찌 붐힐 대소동(재) 35 오토 마을 붕붕 친구들	3	50 MBC 뉴스	00 세상발견 유레카(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갈매기 도시 樂-부산	00 TV 유치원 30 무무와 푸푸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매직테일러	00 쥬블스 30 트럭타고 세계여행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 릴레이	5	00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재)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촌티콤 웰컴투 가오리(재)
00 6시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30 남도 매거진 당신의 프리즘	00 생생 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비타민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한밤의 TV연예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드라마 〈로맨스타운〉	9	55 수목미니시리즈 〈넌 내게 반했어〉	55 드라마 스페셜 〈시티헌터〉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10		
00 KBS 뉴스라인 40 쟁점토론	05 추적 60분	11	05 황금어장	15 KBC특집다큐멘터리 〈진하에서 바람을 타다〉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TV 특강	12	20 MBC 뉴스 24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15 TV백과사전 25 나이트라인 35 인문학 열전

EBS

06:00 직장학개론
06:30 극한직업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7:10 쿵푸 스컹크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캐니멀
08:35 키득키득 실험실
08:45 한글기차 치포
08:55 꼬마버스 타요
09:10 방귀대장 뿡뿡이
09:25 똑딱똑딱 밥아저씨
09:35 출동!소방관 샘
09:55 레온
10:05 최고의 요리비결 〈윤혜신의 자연으로 버무린 시골밥상〉
10:30 60분 부모
11:30 공부의 왕도
12:00 EBS 정오뉴스
12:10 교육, 화제의 인물
13:00 초등 2년 여름방학생활
13:20 초등 4년 여름방학생활
13:40 초등 6년 여름방학생활
14:00 다큐프라임 〈교육기획〉
14:5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15: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3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5:50 찾아봐요 제스와 함께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충동 원더펫
16:45 방귀대장 뿡뿡이(재)
17:00 꼬마버스 타요(재)
17:15 키득키득 실험실(재)
17:25 한글기차 치포(재)
17:35 똑딱똑딱 밥아저씨(재)
17:45 캐니멀(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8:50 와글와글 친구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쿵푸 스컹크
19:35 모래요정 바람돌이
20:00 리얼리티쇼 유아독존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20:50 세계테마기행 〈검은 대륙의 무지개 잠비아〉
21:30 한국기행
21:50 다큐프라임 〈교육기획〉
22:40 극한 직업
23:10 다큐 10+ 〈지구대멸종〉
00:00 지식채널ⓔ(재)
00:05 공부의 왕도
00:35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4:10 EBS 포스 〈김경한의 적분과 통계〉
05:00 수능특강 〈박봄의 정치〉
05:50 〃 〈송기택의 윤리〉
06:40 〃 〈윤혜정의 언어영역〉
07:3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08:20 EBS탐스런 〈민병권의 세계지리〉
09:10 〃 〈권유상의 법과사회〉
11:20 내신6감 〈정승제의 수학(하)〉
12:10 수능특강 〈박남정의 지구과학Ⅰ〉
13:00 수능특강 〈이회명의 세계사〉
14:00 〃 〈민병권의 경제지리〉
15:00 EBS탐스런 〈채수원의 화학Ⅰ〉
16:00 〃 〈이희나의 화학Ⅱ〉
17:00 기본과 특별한 (재) 〈곽정원의 수학(하)〉
18:00 〃 〈영문법 즐겨찾기〉
19:00 수능특강 〈송점석의 생물Ⅱ〉
20:00 〃 〈한필규의 지구과학Ⅱ〉
21:00 〃 〈권주희의 생물Ⅰ〉
22:00 〃 〈정진선의 물리Ⅰ〉
23:00 〃 〈신승진의 세계지리〉

EBS플러스2

08:00 교원 임용 시험대비 강좌
08:30 과목별 검정고시 핵심특강
09:00 TV 여름방학특강 중2 〈영어〉
09:40 〃 〈수학〉
10:20 TV 여름방학특강 중1 〈영어〉
11:00 Magic 중학영문법 Level 1
11:40 수학의 원리 미테마티카
11:50 나의 첫번째 영어쓰기 노트
12:30 TV 여름방학특강 중1 〈수학〉
13:10 TV 여름방학특강 중2 〈영어〉
13:50 중학영어독해 Level 2
14:30 초등 5학년 영어 Fly High
14:50 EBS 클립뱅크
15:10 수학의 원리 미테마티카
15:20 EGra Gra Gramma
15:40 Spy Zone
16:00 Cyber Tales
16:20 초등2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0 초등4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초등6년 EBS 여름방학생활
17:20 초등 수학 - 매스 트레이닝
17:50 영어 원서 읽기
18:30 TV 여름방학특강 중2 〈영어〉
19:10 〃 〈수학〉
19:50 TV 여름방학특강 중1 〈영어〉
20:30 〃 〈수학〉
21:10 중학 영단어 30일 완성 Level3
21:50 나의 첫번째 영어쓰기 노트
22:30 영어 원서 읽기
23:10 Magic 중학영문법 Level1

"관찰자이자 서술자 역할 힘들었어요"

영화 '고지전' 강은표 役 신하균

'복수는 나의 것'(2002), '지구를 지켜라'(2003), '더 게임'(2007), '박쥐'(2009).

이런 화려한 필모그래피는 배우 신하균(37)의 이름을 영화계와 대중들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시켰다.

그는 곧 개봉하는 영화 '고지전'에서 맡은 '강은표' 역할이 자신에겐 도전적인 과제였다고 했다.

"한국전쟁의 동부전선에 투입된 방첩대 중위 강은표는 엄청난 전투를 통해 '악어중대'의 실질적인 리더가 된 친구 '김수혁'(고수)을 바라보는 관찰자이자 영화를 끌어나가는 서술자에요. 길고 긴 전쟁에 환멸을 느끼지만 뭔가를 바꿀 수는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어찌 보면 그 시대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사실 인물 자체로는 표현할 게 별로 없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존재감만으로 관객을 몰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에요.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도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연기하면서도 이게 잘 하는 건지, 맞게 가는 건지 감이 안 잡혔어요. 영화가 캐릭터가 다양하고 등장인물도 많아서 중심을 잘 잡고 끌고 가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저 감독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갔죠. 저도 완성본을 아직 못 봐서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고지의 모습을 실감 나게 보여주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해발 650m의 야산에 세트가 꾸며졌다. 이곳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을 지내며 계속된 촬영은 배우들을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했다.

"강점이 특별히 없는 배우 같아요. 아직 크게 발전한 것 같지도 않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제자리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작품을 자신감 있게 못 보는 편이에요. 시사회에서는 늘 두려워서 한 번도 어깨 펴고 본 적이 없어요. 놓치고 간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 촬영할 땐 아직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보여요. 어릴 땐 연기라는 게 '툭' 하면 '툭' 하고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완벽한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연기를 반복하면서 다듬어갈 수 있는 연극과 달리, 영화는 한 번 찍어버리면 끝이고 길이길이 남으니까 더 치열하게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서글서글한 눈매에 천진난만한 느낌이 들지만,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인상을 준다. 내면을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적지 않은 여성 팬을 보유한 그에게 결혼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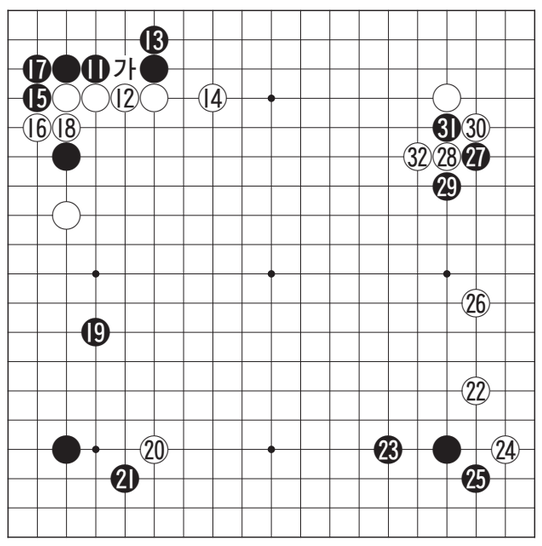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처럼 살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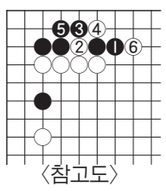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의욕적인 정석선택

1회전 2보(11~32)

白 이상의 5단 (광주시청A) 黑 정장효 5단 (포스코)





〈참고도〉

정장효 5단은 포스코의 중심타자로 최근 단체전과 개인전을 2회 연속 석권하는 등 박광주 5단과 함께 막강한 원투펀치로 활약해 왔다.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의 불참으로 포스코의 우승전선에 먹구름이 끼는가 했는데 운 좋게도 지방 연구생 출신인 강호 이도연 5단이 입사하여 빈자리를 메우면서 여전히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반면 그동안 여러 번 패권을 차지했던 광주시청은 최근 들어 포스코와 주택관리사 등의 맹공 앞에 상대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왕년의 강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판이 우승후보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분수령인 셈이다.

13은 고심의 일착이나 백 14의 호처를 유발해서 불만, 이 수로는 '가'에 꽉 있고 싶은 곳이다. 13으로 '참고도'와 같이 흑 1로 두는 것은 백 6의 호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안 된다. 백 30이 이상의 5단의 의욕적인 정석선택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3일(음 6월 13일 己巳)

子 36년생 동료와 함께 바다 낚시를 떠나겠다. 48년생 충동 구매로 지갑이 가벼워진다. 60년생 여유를 갖고 차분히 추진하자. 72년생 인맥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라. 84년생 개미처럼 부지런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7, 65

丑 37년생 먹구름을 뚫고 붉은 해가 솟는다. 49년생 베푸는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61년생 순수하다는 말을 듣고 보니 상대가 자신을 신임하고 있는 것 같다. 73년생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85년생 앞 선 사냥개가 토끼를 잡는다. 행운의 숫자 : 81, 23

寅 38년생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50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62년생 사소한 소란에 개의치 말고 큰 일을 도모함이 좋다. 74년생 상대는 자신의 언행을 반증하는 거울이다. 행운의 숫자 : 38, 11

卯 39년생 집안 사람들이 화목하니 기쁘기 그지없다. 51년생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고 꾸지람은 정에서 난다. 63년생 자는 개를 깨우지 말라. 75년생 격식보다는 진실한 자연스러움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4, 91

辰 40년생 논밭에 관한 문서가 이롭다. 52년생 말을 경솔히 하면 훗날의 우환이 된다. 64년생 직장과 가정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76년생 주체가 튼실해야 따르는 것도 알차다. 행운의 숫자 : 97, 18

巳 41년생 옛 벗을 만나 정겨운 술 잔을 기울인다. 53년생 어장이 되지 않으려면 해파리만 끓는다. 65년생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77년생 집에서 연장을 찾다가 시간만 낭비 한다. 행운의 숫자 : 69, 32

午 42년생 자손의 경사가 줄 잇는다. 54년생 쌍방 간에 한 발씩 양보하라. 66년생 논쟁은 경청하되 개입하지는 말라. 78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부러지는 것보다는 낫다. 행운의 숫자 : 93, 26

未 43년생 인생의 경험담을 주제로 하는 연설한다. 55년생 직업 윤리 의식이 절실하다. 67년생 충동적인 망언을 자제하라. 79년생 멤버십을 중시하자. 행운의 숫자 : 75, 82

申 44년생 해외 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겠다. 56년생 자신을 미워하는 이에게 베풀어 보자. 68년생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80년생 무리하면서까지 지인의 청을 들어 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79, 90

酉 45년생 공들인 일이 타인에게 넘어간다. 57년생 자신에게 관대한 정도만이라도 타인을 용서하라. 69년생 물고기가 큰 물로 나가겠구나. 81년생 조연이 주연보다 중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45, 89

戌 46년생 조카들을 도와 줘야 할 일이 생긴다. 58년생 배금주의자라는 인상을 풍기면 곤란하다. 70년생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경쟁력이 되리라. 82년생 외모보다는 내실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95, 88

亥 47년생 찾아 온 제자들이 기특하기만 하다. 59년생 파종은 했지만 결실은 먼 훗날이다. 71년생 덕이 쌓이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83년생 시급한 상황에서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는 말자. 행운의 숫자 : 89, 05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다리고/달이고

달이다/다리다

우리말은 발음이 비슷해 표기할 때 헷갈리는 단어가 참 많다. 그중 하나가 '달이다'와 '다리다'다. 주로 '달이다'를 써야 할 때 '다리다'를 많이 쓴다. 하지만, 이 둘은 뜻이 전혀 다른 말이다.

'달이다'는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라는 뜻으로, "어머니께서 약을 달이고 계시다" "간장 원액을 두 번 달이고 합성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아 맛이 깊고 부드럽다" "남편은 정성껏 달인 차를 내오고, 부인은 판소리 사랑가 한 대목을 구성지게 부른다"처럼 쓴다.

반면,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해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란 뜻이 있다. 따라서 "이 셔츠는 매일 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자기 옷을 자기가 다리고, 뭘 입어야 할지도 잘 안다" 등처럼 '다리지' '다리고' 따위로 쓴다.

명사 '다리미' '다림질'이 동사 '다리다'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리다'와 '달이다'의 구분이 좀더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굿모닝 잉글리쉬

That's kind of you to say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A : You've finished the report already? Great job!
B : Thanks! But I'd like you to check my English.
A : What for? Your English is as good as mine!
B : That's kind of you to say. I think you're just saying that, though.

A : 벌써 그 보고서 작성을 끝냈어요? 수고 많았네요.
B :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쓴 영어를 확인 좀 해주실래요.
A : 왜요? 당신 영어실력이 저하고 같은데!
B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Great job! = superb! = Excellent! = Well done!
* What for? = What is the purpose of…?
* That's kind of you to say.
= It's very kind of you to sau so.
= I'm so glad to hear that.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니하오 쫑구워

覆水难收 fù shuǐ nán shōu

엎질러진 물은 담기 어렵다

覆水难收는 '엎질러진 물은 담기 어렵다'는 말로 우리 속담으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자 표기로는 覆水不返盆(복수불반분)으로 씁니다.

'覆水难收(覆水不返盆)'은 중국의 周문왕을 도와 주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齊나라의 제후가 되었던 강태공 이야기입니다. 강태공은 周문왕을 만나기 전에는 시대를 기다리며 가정엔 소홀한 무책임한 가장이었나 봅니다. 아내는 평생 이런 남자를 믿고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고, 훗날 남편의 영전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옵니다. "내 판단이 짧았으니 다시 받아주세요." 강태공이 물 한동이를 가져오게 하여 부인에게 물을 바닥에 붓게 합니다. 그리곤 잠시 후 다시 물을 양동이에 담게 합니다. 부인이 "땅속에 숨어버린 물을 어찌 담을 수 있습니까?"하니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어찌해서 돌아와 살겠다고 하시오"라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日本語を話すことが出來ますか。

일본어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A : 金さんは日本語を話すことができますか。
B : 上手じゃないけど、少し話すことができます。
A : そうですか。英語の方はどうですか
B : 英語はまったく駄目なんです。

A : 김씨는 일본어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B : 능숙하지는 않지만 조금 말 할 수 있습니다.
A : 그렇습니까. 영어는 어떻습니까.
B : 영어는 전혀 못합니다.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